

행복한 가을 날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01 태석기 동국대학교의료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태석기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13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5 희망의 씨앗 생명 나눔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태석기 의료원장은 생명 나눔 실천 본부와 연계하여 장기기증과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태석기 원장은 희망등록 캠페인을 연간 25회 실시하면서, 약 1,000여 명에게 희망등록을 받아 각종 말기 질환자들에게 희망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검진, 저소득 가정을 위한 연탄나눔 봉사 등 장기 기증 문화 활성화 외에도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날 수상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생명 나눔의 아름다운 울림,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의 주제로 한 해 동안 생명 나눔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유공자 34명과 6개의 우수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02 'The 6th KOREA Healthcare Congress 2015' 참석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아시아 최대 국제학술대회인 'The 6th KOREA Healthcare Congress 2015'(이하 KHC)에 태석기 의료원장, 일산병원장, 일산행정처장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하여 10년 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KHC는 '위기의 한국병원들 어디로 갈 것인가?'의 의제로 개최되었으며, △주제발표 △기조 연설 △패널토의 같은 주요 강연 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19개 분과 발표가 열려 참석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세계 석학들이 발표한 의료계 최신 경향과 국내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주제가 주목을 받았다. 참석자들은 "격변하는 시대에 병원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03 김포 중앙승가대학교로 의료봉사 다녀와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는 18일 김포에 있는 중앙승가대학교 육화당과 화경당에서 70여 명의 학인 스님들에게 한방치료와 건강상담 등의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한방신경정신과 구병수 교수, 체질학과 배효상 교수 등 20명의 연우회 회원들은 늦은 저녁시간까지 한약과 침 치료로 승가 의료 공양을 올렸다.

연우회는 이날 중앙승가대학교 스님들의 학업수행과 건강증진을 위해 의약품을 기증했으며, 정밀검사 또는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스님들은 본원 외래진료로 연계하여 치료받도록 했다.

연우회는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승가인의 전문교육공간으로 성장하는 중앙승가대학교 스님들과 2014년 3월부터 인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시행하고 있다.



04 고양지역 의료 IT분야 집담회에서 '의학계열 캠퍼스 시스템 현황 소개'

2015년을 정리하는 고양지역 의료 IT분야 집담회가 16일 일산병원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은 주제를 정하지 않고, 최근에 개발된 우수 사례나 이슈에 대해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본원에서는 의료정보팀 김무중 대리가 프리젠티어(presenter)로 나서 동국대학교와 병원 간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의학계열 캠퍼스 시스템 현황'을 소개하여 타 병원 발표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집담회가 끝난 후 진행 한 만찬에서는 의료 IT 협력과 정보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올해 마지막 집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의료 IT분야 집담회는 대한병원정보협회 고양지회 주관으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일산병원, 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명지병원이 분기별로 개최하며, 병원 간 최신 의료 정보 동향과 우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인적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05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출장검진 시행

건진운영팀은 10월과 11월 6일 동안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와 일산캠퍼스의 교직원과 학생, 연구원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출장 건강검진을 시행했다.

이번 검진에서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연구원들이 일반건강검진 외에 추가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 화학물질 노출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만 40세인 수검자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수검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했다. 수검자들은 "별도로 시간을 내어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지 않고 교내에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바로 체크할 수 있어 편하고 좋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반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운영하여 믿을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으로 본인의 건강을 확인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올해 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검진 항목은 신체계측, 혈압, 비만도, 빈혈, 요단백, 간기능, 콜레스테롤, 혈당, 흉부X촬영, 구강검사 등 본인의 건강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주인공 40호

진료협력센터

남순미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제가 이번 주 소개하려는 주인공은 상대방을 편하게 하는 재주를 지닌 편안한 미소의 소유자, 이름이 말해주듯 마음이 순하고 아름다운 분, 진료 협력센터 남순미 선생님입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은 남선생님의 매력에 푹 빠져보는 기회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늘 밝게 인사해주시는 기분 좋은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직장생활의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순미 선생님에 대해 안 것은 진료협력센터 프로그램을 담당하면서 부터였습니다. 언제부턴가 남순미 선생님의 업무 요청을 받으면 웬지 기분 좋아져있는 나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숙제를 주는 것인데 왜 그랬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남선생님의 업무 요청 방법에 답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하고, 그냥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병원의 프로그램 사례를 미리 찾아보고 우리병원에서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머리에 구상하고 요청을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쉽게 이해도 되고, 설명을 듣다 보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저도 모르게 "사용자의 입장에서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려야지"하는 다짐도 생겼고, 그래서 더 즐겁게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볼 때 남선생님의 꼼꼼한 인품은 무슨 일을 할 때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몸 전체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편안한 미소"로 말이죠. 요즘 같이 바쁘고 각박한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남순미 선생님처럼 상대방을 좀 더 배려하고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미소를 보여주는 마음의 여유를 찾아야겠습니다.

의료정보팀 정운영

알 리 미

유리공예 전시회 기간: 11월 23일(월)~12월 6일 | 장소: 1층 전시장

이마트 풍산점 건강강좌 주제: 사상체질 진단과 건강관리 | 강사: 배효상 교수

일시: 11월 27일(금) 15:00 | 장소: 이마트 풍산점 3층 교육실